

브라질 2010년 대선관련 동향 조사보고

□ 룰라 인기의 재부상

- 지난 11월 23일 여론 조사회사인 Sensus가 실시한 룰라 정권에 대한 인기조사 결과 약 70% 지지율을 기록
- 룰라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09년 3월의 60%대로 당시 상황은 2008년 4/4분기의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3.6%가 급락, 실업률 9.0%로 상승, 연립여당인 PMDB(민주운동당)의 중진 Sarney (전직 대통령, 상원 의원)의 부정 스캔들과 신종 Flu의 만연 등 부정적인 뉴스가 거듭되던 상황
- 그러나 '09년 2사분기 이후 국내 경제의 회복되어 가면서 지지율도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2016년 하계 올림픽 브라질 유치 등으로 전세계 각국의 지도자 중 유례없는 높은 지지율이 계속될 전망

<표1>

룰라 정권의 평가(%)

	양호	보통	불량
2008. 9	68.8	23.2	6.8
2008. 12	71.1	21.6	6.4
2009. 1	72.5	21.7	5.0
2009. 3	62.4	29.1	7.6
2009. 5	89.8	23.9	5.8
2009. 9	65.4	26.6	7.2
2009. 11	70.0	22.7	6.2

출처 : Sensus

□ 차기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여론 동향

-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현재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자신의 후계자인 Dilma 환경부 장관이 그대로 이어 가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차기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시중 PSDB(민주사회당)의 Serra 후보가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표 2> '10. 10월 대통령선거에 대한 1차 투표 시뮬레이션 (%)

조사시점	'09.9월 (A)	'09.11월 (B)	B-A
Jose Serra(PSDB)	40.1	40.5	+0.4
Dilma Rousseff(PT)	19.9	23.5	+3.6
Maria Silva(PV)	9.5	8.1	▼1.4
선호하는 후보자 없음	16.9	13.8	▼3.1
무응답	13.6	14.2	+0.6

- 기타 전 환경장관의 Maria Silva(PV, 녹색당)가 등장하면서 잠시 화제의 대상이 되었으나, 주요 후보를 위협하는 상황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며, 시로·고메스(PSB, 사회당)도 건투하고 있지만, 룰라 대통령이 Dilma를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후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현재까지 대선구도는 여전히 Serra와 Dilma의 대결의 구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양자간의 격차도 거의 줄어들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1차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이어질 2차선거의 경우에도 Serra 후보가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대통령 선거전이 본격화하면, Dilma가 룰라 정권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Serra와의 차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겠지만, 지지율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사용과울루 사무소 제공>